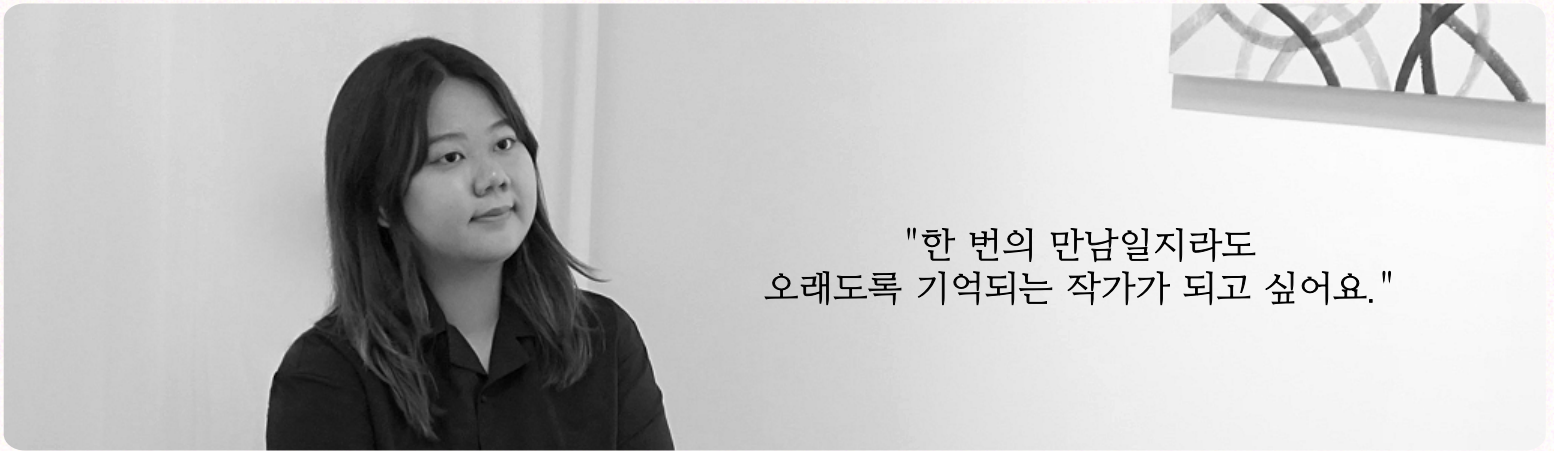


[인터뷰] 우리 만남은 인연이 되어, 강규정



강규정 | 작가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감정의 색깔들로 얽히고설킨 소중한 기억을 그리는 작가.

2023년, 'IKEA 예술공간 광명시작'에서 첫 개인전 <인연:因緣>을 선보인 바 있으며, 이외 관악현대미술대전(평촌아트홀.2021), 스미다(인영 갤러리.2020),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아이 갤러리.2019), 양뎡팡당 2019 KOREA(피카디리국제미술관.2019) 등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e-mail : river_rule_@naver.com

instagram : gyu_rawing_

빛나는 기억의 상자를 여니 인연이 활짝 피어났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만남이 존재하고, 그 만남은 저마다의 시간 속에 얽히고설킨 채 남아있다. 강규정 작가는 그 얽히고설킨,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실'을 자신만의 시선과 감정으로 풀어내고 있다. 오래도록 기억되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강규정 작가를, 그의 '첫 개인전-〈인연:因緣〉'이 진행된 IKEA 예술공간 광명시작에서 만나보았다.

Q. 인터뷰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청년작가 강규정입니다. 한국화와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였고, 현재는 한국화 작가로서, 광명을 기반으로 더 넓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Q. 작가님의 작품관이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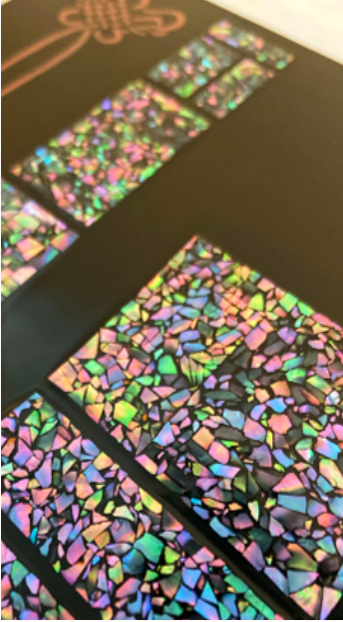
저는 한국화 중에서도 채색화를 중심으로, 제가 바라보는 시선과 감정의 색상들로 얽히고설킨 소중한 기억들을 그려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Q. 작가님의 예술 활동에 있어, '경험'이 매우 소중한 자산이자 영감의 원천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맞아요. 전 항상 무슨 대상을 그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뭔가 작가라면 되게 멋있고 근사한 작업을 해야만 할 것 같고 그에 따른 많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언젠가부터 내 작업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고, 작업에 대한 압박감과 번아웃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시작했고,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해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자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지금은 제가 겪었던 일들이나 소중한 기억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를 중심으로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영감을 얻고 작업을 해 나가고 있어요.

Q. 그렇다면 작가님의 경험을 작업으로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감정의 변화 같아요! 저는 일상에서 작은 만남일지라도 그때 행복했던 순간이 기억에 오래 남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와 만남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의 순간에 느낀 감정들이 제 작업에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Q. 작가님의 첫 개인전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전시 <인연:因緣>의 기획 배경과 전시를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전시 <인연:因緣>은 제가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을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전시를 통해, 각자가 가진 소중한 인연들과 기억, 사소한 추억들이 서로를 연결하며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Q. 전시 <인연:因緣>이 광명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의 선정작인 만큼 작가님도 광명과 '인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 광명에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광명에서 거주한 지 벌써 24년이에요. 광명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와서 예고와 미대를 졸업하고 나니 광명이라는 지역에 대한 친근함과 애착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에서 지역작가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청년작가로 발돋움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싶어서 광명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해 나가고 있고, 관련해서 되게 많은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광명문화재단 예술기획팀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부터, 정책기획팀 시민기획단 광명문화미식회, 문화도시팀 문화지음소, 광명시청 사회적경제과 청년 생각펼침 공모사업까지. 이번 연도에 엄청 많은 일을 도전해 본 것 같아요. 광명문화재단 대표님께서 저를 매일 보는 것 같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광명에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협업하면서 더 배워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여러 사업에 참여하고 싶고, 작가로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싶어요.



Q. 광명에 대한 애착의 마음을 담아, 광명의 알려지지 않은 명소를 한 곳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전시 보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광명에서 전시실을 찾기가 약간 힘든 점이 있어요. 그래서 광명에 있는 갤러리 카페 3곳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안동의 아우름, 소하동의 가우디, 가학동의 갤러리 엘리스'라는 공간이에요. 갤러리 카페인데 음료와 베이커리를 즐기며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Q. 작가님의 다른 작업도 궁금해졌어요. 그와 관련해서, 요즘의 관심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엄청 다양한 작업을 해왔어요. 회화, 공예, 디자인 등 새로운 걸 배우고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한국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나중엔 이전에 작업했던 의상 디자인을 접목해서 회화뿐만 아니라 조형, 입체작업도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웃음)

강규정 작가의 작품과 이야기에는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가득했다. 그 애정은 그날의 짧은 만남에 있어 여운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생의 파편을 모아 쥐고 그 속에서 빛나는 인연을 피워내는 예술가 강규정. 앞으로 그의 예술가로서의 도전과 성장, 그리고 광명과의 더 깊어질 인연이 기대된다.